

■ '광주정음성국제음악제' 7~10일 문예회관 대극장



▲서양악기와 중국 악기가 어우러진 중국국영방송 민족관현악단.

정율성 선생을 기리며...

▼김정원·김수빈·송영훈·김상진으로 구성된 MIK 앙상블.

중국민족교향악단·광주시향 등 공연

중국 최고의 음악가 중 한명으로 추앙받는 광주 출신 정율성(1914~1976) 선생을 기리는 광주정음성국제음악제가 7~10일까지 광주문예회관 대극장에서 열린다.

7일 개막공연은 바이올리니스트 이경선(서울대 교수)씨가 이끄는 화음첼비앙상블이 장식한다. 연주곡목은 백병동의 '여울목', 비발디의 '사계', 마스네의 '타이스명상곡' 현악앙상블 버전이다.

8일은 MIK 앙상블의 무대가 이어진다. 피아니스트 김정원, 바이올리니스트 김수빈, 첼리스트 송영훈, 비올리스트 김상진을 구성한 MIK 앙상블은 국내 정상급 클래식 프로젝트 그룹으로 2006년부터 매해 정기공연을 펼치고 있으며 3장의 연주 음반도 발매했다.

연주곡목은 드보르작의 '피아노 트리오 4번-뚝키', 드보르작의 '피아노 4중주곡 2번 작품 87', 헨델의 '비올라와 첼로를 위한 파사칼리아'

등이다.

9일에는 서양악기와 중국 전통악기가 어우러진 중국국영방송 민족관현악단이 무대를 장식한다.

정율성의 오페라 '망부운' 서곡으로 문을 열며 바리톤 김동규씨가 오페라 '카르멘'과 '세빌리아 이발사' 아리아를, 김광복(전남대 교수)씨가 김희조곡 '피리협연을 위한 민요스케치'를 협연한다. 마지막곡은 드보르작의 교향곡 9번 '신세계'다.

폐막 공연은 구자범 지휘자가 이끄는 광주시립교향악단이 장식한다.

광주시향은 오페라 '나부코' 서곡을 들려주며 피아니스트 크리스토퍼 테일러(미국 위스콘신대 교수)가 소편의 '피아노협주곡 2번'을, 박미자(이화여대 성악과 교수)가 벨리니의 오페라 '청교도' 중 '부드러운 그대 음성', 정율성 곡 '매화를 울노라'를 선사한다.

피날레 곡은 광주민중항쟁 20년을 기념하는 윤이상 곡 '광주여 영원하라'이다.



한편 8일 오후 2시 전남대연주홀에서는 '정율성 음악과 국제음악제'를 주제로 워크숍이 열리며 7일~13일까지는 정율성 선생의 삶과 음악을 담은 사진 전시회도 열린다. 문의 062-511-1260.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인간 내면의 꿈과 욕망을 드러내다

서양화가 양동희씨 첫 개인전, 7~13일 광주 예향갤러리

여행지의 낯선 풍경과 감동은 때론 많은 예술적 영감을 준다.

서양화가 양동희씨가 오는 7~13일 광주 예향갤러리에서 첫 개인전을 연다.

이번 전시에서 양씨는 '삶의 편린 그리고 추억'을 주제로 아프리카, 남미, 인도, 이란, 터키 등 전세계 40여개국을 돌며 그린 작품을 선보인다.

화려한 색과 안정적인 화면 구성으로 따뜻한 느낌을 주고, 대담한 선을 통해 간결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또 여성과 고양이, 꽃, 새, 오리 등을 형상화해 인간 내면의 꿈과 욕망을 형상화했다.

한국의 누드미학전, 인체드로잉전, 한국미술협회전 등의 단체전에 참여했으며 한국미술협회, 사생회, 토만사 회원으로 활동 중이다. 문의 062-234-4050.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춤추는 곡에서'

8일 독립영화 정기상영회

컬처클럽 네버마인드

대안문화 공간인 네버마인드 독립영화 정기상영회가 오는 8일 오후 7시30분 컬처클럽 네버마인드에서 열린다.

상영작은 '똥파리' 유명한 양익준 감독이 메가폰을 잡은 '아무말도 할 수 없다', 소년과 파키스탄에서 온 소녀의 애절한 한 때를 그린 배성근 감독의 '소년은 자란다', 미장센단편영화제 '장르의 상상력전' 경쟁부문 출품작인 '비몽'(사진) 등 세편이다.



영화 상영후에는 '비몽', '아무말도 할 수 없다'의 주연배우 정혜원이 관객과의 대화에 나선다. 티켓 가격 5000원.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정경란 시인 첫 시집 출간

'추억을 위한 레시피' 등단 10년만



등단 10년째를 맞은 정경란(41·사진) 시인이 첫 시집 '추억을 위한 레시피'(한국문연 펴냄)를 냈다.

이번 시집에는 일상에서 느낀 소중한 감정변화와 삶의 본질에 대한 탐구를 원초적 필치에 담은 총 51편의 시를 4부로 나눠 담았다.

정 시인의 시적 출발점과 기동은 삶의 본질 탐구로 압축된다. 시인에게 몸은 자아의 귀착점이자 삶에 대한 성찰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표상으로 나타난다. 이 같은 정 시인의 시세계는 '심' '목에 걸린 가시' '평생 소화하지 못한 말' 등에 잘 드러나 있다.

지난 출간인 정 시인은 광주대 문창과를 졸업하고 광주매일 신춘문예(2001년)와 시전문지 '시와 사람'신인상(2004년)을 통해 등단에 나왔다. 현재 광주시 남구청 문화홍보실에 재직하고 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청소년 눈예술상 미술실기대회'

비엔날레재단, 23일 중외공원

광주비엔날레 재단은 예술 인재 발굴·육성을 위해 '2010 광주비엔날레 청소년 눈예술상 미술실기대회'를 개최한다.

제8회광주비엔날레(9월3일~11월7일)의 전시 테마인 '만인보'를 주제로 한 이번 실기대회는 전국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오는 23일 광주시 북구 용봉동 비엔날레 전시관 인근 중외공원에서 열린다.

신청은 오는 6~20일까지며, 이번 광주비엔날레와 관련된 풍경 및 소재(사생부)를 그리거나 전시 만인보에 관한 주관적 표현(창작부)을 나타내면 된다.

또 수채화, 한국화, 유화, 아크릴화, 크레파스, 입체 등 창작 방법은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다.

입상자는 29일 광주비엔날레 홈페이지를 통해서 발표되며, 모든 참가학생은 행사 당일 이번 광주비엔날레를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문의 062-608-4233.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딸 소재의 시각으로 본 예술가 정율성

이영애 발레단 '소재의 바이올린' 공연... 13일 광주문예회관



현재 한창 진행중인 광주국제공연예술제에서는 정율성 선생을 소재로 한 발레가 공연될 예정이다. 이영애 발레단은 창작 발레 '소재의 바이올린'(13일 오후 7시30분 광주문예회관 대극장)을 무대에 올린다.

'소재의 바이올린'은 한국과 중국을 무대로 위대한 음악가이자, 항일독립투사, 혁명가로 치열한 삶을 살았던 정율성 선생의 삶을 발레로 풀어

낸 작품이다.

작품은 '청년 율성', '연인 율성', '영웅 율성' 등 3장으로 구성돼 있으며 광주시립무용단장을 역임한 이영애씨가 안무를 맡았다. 오윤환·강병창·구윤지·조나경·노여진씨 등이 출연한다. 작품명에 등장하는 '소재'는 정율성 선생의 외동딸로, 그녀의 시선으로 작품을 풀어간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Advertisement for IPALG TRI-SUMER waterproofing system. Features a worker applying the product and a list of 7 benefits. Contact info: (062) 511-0444, www.IPALG.com.

Advertisement for Dream Korea waterproofing services. Headline: '방수! 바닥! 직접 공사하세요!'. Includes a list of services, a price table for different materials, and contact information for regional branches.